

오늘 본문은 야곱이 세겜에서 10-15년의 삶을 살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벤엘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세겜의 세월은 야곱에게 세상에 시선과 마음을 다 빼앗겨, 하나님과의 만남, 은혜, 약속, 말씀을 잊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다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성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의 복수로 하몰의 가문 남자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노략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족속들이 하몰의 가문 사람들을 대신 복수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다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은 갑자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야곱이 가장 위급한 순간, 절망의 순간 하나님 앞에 회복됩니다. 그의 신앙에 다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 야곱의 회복과 부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회복과 부흥의 원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번째, 부흥과 회복의 원리는 들음의 원리입니다.

회복과 부흥의 첫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34장 31절과 35장 1절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의 삶에 전환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오늘 말씀이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두번째 회복과 부흥의 원리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겜에서 일어나 세겜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머물지 말아야 할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막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육신이 떠나야 할 곳, 머물면 안 되는 곳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떠나야 할 장소, 사람, 일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번째 부흥과 회복의 원리는 버림의 원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온 가족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온 가족과 식솔들에게 우상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상은 하나님처럼 사랑한 것, 소중한 것, 의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그곳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벤엘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7절에 보면 '엘벤엘'이라고 고백합니다. 벤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을 엘벤엘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장소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입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15)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7/25(월)	7/26(화)	7/27(수)	7/28(목)	7/29(금)	7/30(토)	7/31(주일)
전10-12, 아1-2	아3-8	사1-3	사4-7	사8-10	사11-14	사15-19

QT

이번 주 QT 말씀

7/25(월)	7/26(화)	7/27(수)	7/28(목)	7/29(금)	7/30(토)	7/31(주일)
고후10:1-11	고후10:12-18	고후11:1-15	고후11:16-33	고후12:1-10	고후12:11-21	고후13:1-13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 삶에 결단할 것을 나누어 주세요.
3. 나를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장소, 사람,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떠날 수 있을지 나누어 주세요.
4. 현재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나누어 보세요.